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자화상 미술표현을 통한 자아존중감 변화 분석*

이 재 경** · 김 선 아***

〈 초 록 〉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청소년들, 특히 상실감과 소외감, 정신적 비관을 느끼기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도록 하는 심리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화상 표현은 인간의 감정과 자아를 표현하는 데 있어 적합한 미술 활동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화상 그리기 활동이 가지는 치유적 효과를 자아존중감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저소득층 자살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자화상 작품 5점 이 외에도 대상자의 진단 자료, 해당 회기의 관찰일지, 연구 참여자의 자서전 형식의 문서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미술 작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Coopersmith, 1967)척도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는 자화상 미술표현이 자신의 부정적 그림자를 직면하여 상징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 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자화상 미술 표현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전체 안에서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보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도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복잡성을 가진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의 억압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미술 표현지도 방안으로서 자화상이 미술치료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 저소득층 (Low-income group), 자살고위험군 (High-risk suicide group), 자살고위험 (High-risk suicidality), 자화상(Self-portrait), 자아존중감 (Self-esteem)

I. 서론

사회 안에서 경제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저소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 (HY-2014년도)

** 본 학회 회원, 가양4복지관 미술치료사, 경인여대 강사,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제1저자, saerani@naver.com

*** 본 학회 회원, 한양대학교 부교수, 교신저자, sakim22@hanyang.ac.kr

득층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할 시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2013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평소 가족과의 대화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수준 ‘상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3.7%가 가족과의 소통이 단절(거의 대화가 없거나, 전혀 하지 않는 수준)된 것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하층’의 경우 가족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15.8%에 달해 상층에 비해 4배가 넘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평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한다’는 응답 비율 역시 상층 82.8%, 중상층 77.5%, 중층 70.2%, 중하층 59.6%, 하층은 49.5%로 상층과 하층 간에 약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었다(여성가족부, 2013). 한편 우리나라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자살 충동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은 서울 시내 저소득층이 밀집한 7개 지역 아동·청소년 814명을 대상으로 ‘2008 경제위기에서의 빈곤 아동·청소년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25.9%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24.7%로 중간층 아동·청소년의 14.9% 보다 10%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25.9%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서적 동요와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저소득층 가정 자녀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 경험이 많으며 바른 사회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지지의 기회가 적다(김진이, 2009). 따라서 우울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그동안 여러 연구들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교하여 불행, 불안, 의존성, 우울, 충동성, 반항성 등이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현선, 2008; Brooks-Gunn & Duncan, 1997; McLoyd et al., 1994)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한 불안정감은 자살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파악하고 이들의 심리적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Rogers(1961/2009)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개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목표이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Jung은 ‘자아’란 의식적인 정신의 중심이고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총괄하는 전체정신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아’는 정신에 있어서 의식 부분에 불과하므로 ‘자아’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인 것을 깨닫는 의식화, 곧 개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부영, 2011). 자아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청

소년기, 특히 정신적 비관을 겪기 쉬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게는 진정한 ‘자기’를 찾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통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 성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탐색하고 의미를 발견하며 정체성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미술의 형식 가운데 자화상에 주목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자화상을 미술 매체로 활용할 때 자아존중감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윤정(2011)은 자기 탐색과 이해를 돕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화상 그리기 수업이 자신의 자아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이선화(2011)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치유활동으로서의 자화상 그리기 수업 사례 연구를 통해 자화상이라는 주제가 내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부정적인 아픔을 승화시켜 긍정적인 자아 확립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로 자아존중감(Coopersmith, 1967)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35회기의 미술 표현 활동을 통해 수집된 문서자료 및 시각자료 18점 중 자화상 작품 5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자화상을 통하여 분석하고, 미술 치료 매체로서 자화상이 가지는 자기 개방을 통한 자아 치유적 효과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의식하게 되는 시기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우울, 고립감, 무력감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이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양육과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과의 갈등

이 많고, 부모 간 불화, 부모와의 대화 부족, 부모로부터 소외감, 불만족을 느끼는 청소년의 경우 특히 자살의 위험성을 많이 보이게 된다(홍나미, 1998). 또한 과거 부정적 양육 경험이 청소년 자살 생각에 연관이 되어(전영주, 이숙현, 2000)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 간 의사소통, 부모로부터의 소외감을 포함한 가족 문제가 청소년의 자살 생각을 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로부터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부모의 애정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부모로부터 소외감, 불만족 등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

자살시도 시 느끼는 감정 중 하나로 양가감정(Mann et al., 2005)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살은 자신의 고통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수단(강기중, 2008)이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시도는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괴로움에 대하여 도움을 바라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창조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자살 충동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Durkheim(1897/2008)은 ‘자살론’을 통해 자살은 개인적 행위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임수영(1995)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자살충동에 있어 완충작용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들에게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처 방법을 제공하고, 위기 상태에서도 새로운 도움을 찾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는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애정 부족으로 인한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서적 지지는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소외되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태도의 변화를 유도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살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여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게 되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저소득층 자살고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긍정적 태도로의 심리적 변화는 ‘자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민섭(1993)은 자신의 자아상과 상반된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내적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서 자살을 택할 수 있으며, 자아 발달의 실패를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성장 실패인 ‘자아 취약성’의 개

념으로 보았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결여된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자살 충동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조현진, 1990). 특히,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면, 현재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 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임영식, 1997).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자아개념 요소로서, 내면적인 정신적 세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미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원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동에게 있어 자기성취 능력으로 작용한다(김은영, 2003).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자살 시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은 자기의 특성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로서, 자아 존중감은 인물과의 상호 작용과 존중받을 만한 행동 또는 성공적인 경험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타인의 승인에 의해 구성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가정환경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감정적 지지 체계가 열악한 상태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리하여 사회적 역할 회피나 대인 관계에서 소극적, 혹은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소외 갈등을 갖게 되어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발전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기에 대한 자각이 매우 향상되는데, 향상된 자기에 대한 자각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 청소년들은 열등감과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Elkind, 1984).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경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열등하다고 인식하여 수치심을 느끼기 쉽다. 이러한 좌절감이나 열등감은 심각한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스트레스에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처 능력 저하로 자살 생각과 더불어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3. 자화상 표현과 청소년기 ‘자아’의 관계

자화상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pronrahere’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다. pronrahere는 원래 ‘끄집어내다(draforth)’, ‘발견하다(discover)’, ‘밝히다(rever)’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발전하여 자의식을 그린다라는 뜻의 ‘portary’가 되었다. 이 단어가 자신을

뜻하는 ‘self’가 합하여 ‘self-portrait’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고, 이는 간단하게 ‘자기를 끄집어내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Walker, 1983).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자화상은 작가의 직접적인 내면의 표출이자 자아 인식 방법으로, 작가의 정신세계를 구체화시키고 시각화하여 자신에 대한 자아와 성찰을 그림으로 승화시키려는 욕구와 독창적인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쳐 보이고 싶어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랜 역사 속에 작가들은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의식을 확인하였으며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자화상 작품을 제작하였다(이정인, 2009). 자화상은 자신을 직접 표현하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 생각할 자기 탐구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자기 표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술 치료에서 자화상 작업은 자신을 탐색하도록 돕고, 자기의 경험과 가치관을 작업에 표현하면서 자신의 욕구, 갈등, 관심, 생활상 등 자신의 심리 상태를 표출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정신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 문제 행동을 감소시켜 주고 자아 개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정영인, 2009). 미술 치료에서 자화상 미술 작업은 내담자의 내면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감정 정화의 역할을 수행한다. 화가의 자화상 작업에서만 아니라 미술 치료에서의 자화상 그리기는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돕고, 자기의 심리적 상태를 표출하며, 경험과 가치관을 작품에 투영하거나 욕구와 관심, 생활상, 갈등 등이 반영되도록 하여 자기의 정신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팽은경,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자화상 그리기는 생활 문제 해결과 자기관리 능력의 습득과 문제 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아개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자화상 표현에서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의 자기 신뢰가 중요하다. 자신이 표현한 작품을 통하여 개인의 잠재력과 개성, 감정을 표출하여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고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해준다. 자화상 그리기를 통한 자기표현은 표현의 매개체가 자기 자신이므로 표현 자체에 진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신과의 교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소창애, 1997). 이렇듯 자화상 미술표현 활동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표현한 사람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이 본래 갖고 있으나 발휘하지 않았던 잠재 능력을 주도적으로 알아차림으로써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돕는다. 이러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내면을 통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체 안에서 ‘나’로서 사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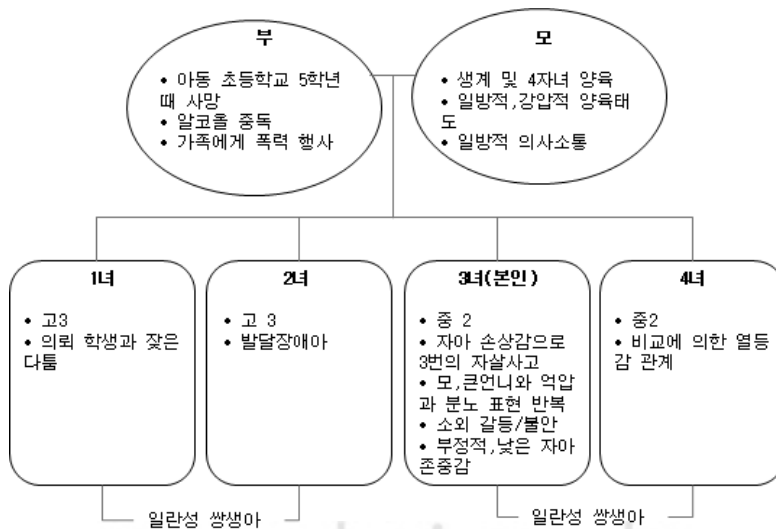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참여자는 S시 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기초 수급 가정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학교 검사에서 우울 및 자살 사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상담센터에 의뢰되었다. 해당 복지관 상담센터 상담사의 초기 면접지에 의하면 5학년 때 부 사망 이후 감정 변화가 심하고,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한다고 호소하였다. 부는 연구 참여자 초등학교 5학년 때 사망하였고, 사망 이전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하였다. 모는 현재 4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맡고 있으며, 가정 내 시간의 대부분을 장애를 가진 둘째 자녀의 양육에 보내고 있다.

모의 양육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부분이 많아 가정 내에서 감정적 불만이 높은 상태였다. 4녀 중 3녀로 의뢰 당시 모와 큰언니와 자주 부딪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보건센터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모의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모는 정서적 지지나 위안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있어주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억압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가정 내 정서 지지가 없어 대화부족, 소외감 등으로 허전함과 서운한 감정이 많이 내재되어 내면적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고 큰 언니와의 관계에 있어 내적 분노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 연구 참여자의 가족 관계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의뢰 학생의 가족 관계도



장애아인 둘째 언니에 대한 안쓰러움, 일관성 쌍둥이인 동생에게 비교되는 열등감 등 자매 간 관계에 있어 다면적 감정으로 내면이 어수선하고 복잡하여 정서적 불안이 매우 높았다. 가정 형편 상 경제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자신이 많은 부분 양보해야 하는 것과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에서 오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가족 내 소외 갈등이 심한 상태였다. 전반적으로 자아 강도가 약해져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심해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부정적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2.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프로그램은 2012년 11월 10일부터 시작하여 2014년 2월28일까지 매주 50분 35회기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전, 사후 검사 결과와 35회기의 미술 표현 활동을 통해 수집된 문서자료 및 시각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Coopersmith, 1967)척도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로 실시하였다. 문서자료는 31장의 회기별 관찰일지와 연구 참여자의 자서전 형식의 글,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인계 받은 초기 면접지 및 평가 보고서를 포함하였다. 시각자료는 35회기 미술 표현활동의 결과물로서 18점의 작품이 제작되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볼 수 있는 자화상은 내면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자화상은 미술 작업에 자기를 직접 등장시킴으로써 표현의 적극성을 돕고, 생활사에 나타나는 갈등이나 부적응한 행동을 비언어적 표현으로 이끌어내어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켜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보도록 유도할 수 있다(소창애, 1997). 이에 본 연구는 미술 치료 결과물 중 자화상에 집중하여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서 자료로 회기별 관찰일지를 통해 자화상 미술 표현활동 중 언어로 표현한 심리적 변화와 행동·표정 등의 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자서전 형식의 문서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 종결 후 심리적 변화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각 자료 중 5점의 자화상 결과물을 통해 자신의 의식 변화에 따라 미술 표현이 변화되는 과정을 해석하여 문서 자료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자신감이 부족한 저소득층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자신이 가진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재정립하여 보다 긍

정적인 삶의 자세로 이끌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자아존중감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자료수집 방법을 요약하면 <표 2>과 같다.

<표 2> 자료 수집방법

수집방법	수집내용
①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검사	· 학생의 자아존중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미술활동 사전·사후 실시
② 관찰 일지	· 미술 표현 활동을 통한 학생이 언어적 표현, 행동과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한 관찰일지 31장 작성
③ 자서전	· 미술 활동 후 스스로 작성한 노트 한권 분량의 자서전 형식의 문서 자료가 수집
④ 초기 면접지	· G구 복지관 상담센터 상담사가 초기 면접을 실시하였고, 상담 내용을 초기 면접지로 작성.
⑤ G구 보건센터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 G구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심리 검사 실행 후, 학생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인계받음.
⑥ 시각자료	· 미술 표현활동 결과물로 18작품 제작. (자화상 시각자료 5점)

3.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 내용

본 연구는 자아 치유적 미술 치료 프로그램으로서 지시적인 작업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단 도구를 활용하기보다 자유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자기 선택 태도를 존중하였다. 불안이 높고 자신감이 부족한 연구 참여자의 환경적·심리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스스로 자아를 인식하고 내적 욕구를 표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작업 과정에서 느끼는 세심한 감정을 개방하게 하여 자기를 발견하고 스스로 자아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단계별 목표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단계별 목표와 활동 내용

단계	단계별 목표	회기	활동 내용		
초기 단계	교사와의 신뢰감 형성	1~6	· 편안한 안정감 제공 ·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을 위한 공감작업	1	자아존중감 검사
				2	돌려가며 그리기
				3	선을 이용한 난화
				4	점토 주무르기
				5	테두리기법1-나무1
				6	테두리 기법2-자화상1
중기 1 단계	내적 욕구 탐색	7~12	· 내적 자기 발견 · 자기 내면 관찰	7	만다라
				8	9분할 회화법
				9	LMT검사법
				10~11	자유주제-바라는 내모습
				12	자유 주제-화분
중기 2 단계	자기 인식과 수용	14~23	· 내면 욕구를 시각화 · 각화 된 자기를 객관화	14~17	자유주제-짜증나는 세상
				18~20	자유주제-이중성의 얼굴
				21~23	자유주제-보석 화분
중기 3 단계	자기 이해와 자기에	24~28	· 두려움 극복을 통한 자아 재정립 · 자신감향상으로 주도적 변화	24	이미지맵
				25	마술씨앗
				26~28	자유주제-이중성의 꽃
종결 단계	자기 통합, 조화	30~35	· 감정의 통합을 통한 전체 안에서 조화를 경험함으로써 긍정적 삶의 자세로 변화	29~31	자유주제-어른이 된 나
				32~34	자유주제- 화분
				35	자아존중감 검사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정서적 불안이 높은 저소득층 자살고위험군 청소년이 자화상 미술 표현 활동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부정적 내면을 직면하여 자기 주도적 자세로 변화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화상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여 자기의 심리적 상태를 표출하는 데에 적절한 매개체 역할을 하여 자기의 정신

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 문제 행동을 감소시켜주고 자아개념을 증진시킨다. 자화상 미술 표현 활동을 하면서 나는 자발적인 대화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의식에 따라 그림이 변화되는 과정을 시각화함으로써 스스로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고 주도적인 자아로 변화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었다.

1. 자아존중감 척도 변화 분석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 변인(26문항), 가족관계변인(8문항), 사회적 변인(8문항), 학업적 변인(8문항) 등 4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oopersmith가 12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50개 문항으로 검사하고 5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신뢰도는 .88이었으며, 3년 뒤에는 .70이었다. 타당도와 관련하여 R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와 .58에서 .60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상관관계는 .44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초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실천사회복지회, 2014).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척도 하위요인은 자기 비하,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불안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연구 참여자의 검사 결과 하위 요인 중 자기 비하 부분은 역채점 방식으로 사전검사 0점, 사후검사 3점으로 자기 비하에 긍정적 요소가 없던 상태에서 3점 상승하였다는 의미는 자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타인과의 관계는 3점에서 2점으로 나타나 1점 감소하였는데, 불안이 높은 연구 참여자의 정서적 특성 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의 내면을 관찰하게 됨으로써 타인에게서 획득하려고 했던 인정 욕구를 자기 스스로 채우려는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로 보여 진다. 지도력과 인기는 0점에서 5점으로 5점 올라 반등 폭이 가장 크게 변화하였는데, 타인과 관계 맺기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타인과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감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자기주장과 불안은 역채점 문항방식으로 1점에서 5점으로 4점 상승하였다는 것은 자기주장과 불안이 감소하였다는 의미이다. 높은 불안감은 자기에 위축된 행동이나 왜곡된 형태의 과격한 자기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살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있어 부정적 자기주장은 자살 생각이나 자살 행동으로 표현 될 수 있는데 자기주장과 불안 점수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안정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전검사 4점에서 사후검사 15점으로 총점이 11점 상승하여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미술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다방면으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자아존중감 검사를 통하여 본 사전 사후 검사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하위 영역	사전	사후
자기 비하*	0	3
타인과의 관계	3	2
지도력과 인기	0	5
자기주장과 불안*	1	5
총점	4	15

(*은 역채점 문항)

2. 자화상에 드러난 자아존중감 변화 분석

자아존중감 변화는 자아존중감 척도 분석과 더불어 연구 참여자의 시각자료 결과물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 중 자화상 미술 결과물은 자신의 부정적 내면을 직면하고 자기 주도적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잘 드러내 주었다. 다음에서는 자화상 작업 과정 중 나눈 대화를 적은 회기별 관찰 일지, 자화상 결과물 시각자료, 미술 표현 활동 후 작성한 자서전 형식의 문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분석한 내용을 3가지 주제로 범주화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고립에서 자기 개방으로의 의식화 과정

자화상은 ‘자아’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소재이다. 자화상은 본능과 자의식이 만들어진 작품으로 작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가장 진지한 면을 볼 수 있으며, 작가 자신이 어떻게 보여 지기 원하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짓고 이해하는지에 관한 그만의 양식을 읽을 수 있다(윤정은, 2010). <그림1>을 살펴보면 과시적인 행동을 통해 과잉으로 보여 지기를 원하는 연구 참여자의 본능과 내면 깊숙한 정서적 억압,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차단하는 심리적 ‘고립’ 상태의 자아

가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림 1> 6회기 미술표현활동
결과물

옷을 너무 자세하게 그리는 경우는 자기정체성의 불확실성을 자기과시적인 행동을 통해 과잉 보상하고자 함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신민섭, 2007). 그림에서 나타나는 조끼의 과도한 수직선은 자신의 내적인 힘과 유능감에 있어 매우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신감 부족한 내면을 리본 넥타이를 통해 자신을 과잉보상하려 하고 있다. 신민섭(2007)은 손은 세상과의 교류, 자시의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 현실에서의 대처 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체 부분이기 때문에 손에 대한 그림을 통해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 및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팔을 짧게 그림으로써 대처 능력이나 상호 능력의 부족하여 억제하고 수동적 감정 상태로 모의 강압적인 양육 태도와 일방적인 의사소통에 침묵 등으로 회피하는 심리적 억압 상태임을 알려준다. 특히, 손가락을 뽀족하게 그린 것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한 내면을 상징하는데, 큰 언니에게 분노와 공격적 행동으로 적대적 감정이 외현화 되고 있는 자신을 의미한다. 또한, 다리를 그리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무력감의 표현으로 매우 우울한 상태이며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림에서 특이한 것은 자기의 모습에 테두리를 그려 넣었다는 점이다. 이는 외부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감정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차단하는 ‘고립’을 선택한 것으로 ‘12회기 관찰 일지에서도 <그림1>에서의 테두리와 같은 의미의 고립’의 감정이 잘 표현되고 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난 나만의 세계가 있되 갇혀있고 싶진 않아요. 갇혀있으면 너무 짜증날 거 같아요. 품도 안 나고...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홍대에서 특이한 옷 입고 공연하거나 벽화를 그리는 사람이에요.(12회기 관찰 일지 중에서)

12회기 관찰 일지를 살펴보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고립’상태임을 표현하고 있다. 고립 상태의 내면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나, ‘난 나만의 세계가 있되 갇혀있고 싶진 않아요.’라고 표현함으로써 자기내면을 개방하려는 의지도 나타나고 있다. 전은희(1996)는 자기개방을 하면서 문제에 직면하거나 자기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에 있어 더 명료하게 재인식하고 구조화하며, 이를 자기 개념에 동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역시 ‘갇혀있으면 너무 짜증날 거 같아요. 품도 안 나고’라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홍대에서 특이한 옷 입고 공연하거나 벽화를 그리는 사람’이고 싶은 자기 개념을 재인식하면서 자기개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평범하지 않은 화려한 삶을 원하고 있음을 명료하게 재인식하고 구조화하게 된 것이다.



<그림 2> 11~12회기
시각자료 결과물

한국사회이론학회(2008)는 자아는 정신에 있어서 의식 부분에 불과하므로 자아인 내가 전체를 통괄하고 자각하려면 무의식적인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의식화, 곧 개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림 2>을 살펴보면, 자신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고립 등의 억압된 무의식적 감정을 의식화함으로써 점차 긍정적이고 안정된 자아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그림 1>에 비해 안정된 비례와 구도를 가지고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그림 1>에 그리지 않았던 다리를 표현함으로써 현실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자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기개방을 통해 무의식적 내면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낮은 자아 존중감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그림자’ 인식을 통한 세상의 직면

Jung에 따르면 자아는 사회 환경을 만나면서 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인 내부 세계와 관계를 갖으며, 무의식적인 측면에서의 ‘나’인 그림자가 있다고 하였다(이부영, 2011). 그림자는 열등한 인격으로 자아의 어두운 면이며, 자아로부터 배척되어 무의식에 억압된 성격 측면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자아와 비슷하면서도 대조되는,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아의식의 한쪽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림자는 그만큼 반대편 극단을 나타낸다(이부영, 2011) <그림 3>은 18회기~20회기 결과물로 자아와 그에 따른 그림자를 잘 표현하고 있다. 한사람의 얼굴을 반으로 나눠 무의식적인 감정에 따라 우등한 인격인 모범생과 불안정한 감정의 반동으로 문제아를 표현함으로써 열등한 성격인 그림자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18회기 관찰일지에서도 그림자에 대한 설명이 잘 표현되어 있다.

빨간 머리 아이는 정신사납고 성격은 어두워요. 씨클 렌즈 끼고 머리도 염색하고 파마하고 파운데이션도 완전 진하게, 볼터치도 하고, 아이라인도 진하게 하고, 화장도 떡칠했어요. 반쪽 아이는 모범생이에요. 교복 단정하게 입고 화장도 안하고, 머리도 단정하고. 근데 가식적이죠. 난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둘 다 싫어요.(18회기 관찰 일지 중에서)

‘교복 단정하게 입고 화장도 안하고, 머리도 단정하고’의 모범생 자아와 ‘정신사납고 성격은 어두운’ 열등의식인 그림자 사이에서 ‘난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둘 다 싫어요.’ 라고 표현함으로써 양가적 감정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자는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버려져 있어 분화 될 기회를 잃었을 뿐이며 그것이 의식되어지는 순간 그 내용들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김성민, 1998), <그림 3>에서 ‘그림자’인 어두운 내면을 의식 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귀는 정서 자극 을 반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신민섭, 2007). 전 단계에 그리지 않았던 귀를 그려 넣 음으로써 외부환경에 잘 처신할 수 있는 정서적 수용의 준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18~20회기 시각자료
결과물

목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공상, 감정 등의 인지적 부분과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연결하는 통로(신민섭, 2007)로 지난 단계에 비해 목이 안정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어 자기 통제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깨는 상징적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관계(신민섭, 2007)되는데 어깨를 넓게 표현함으로써 책임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음을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가적 감정 때문에 혼란한 감정이 있으나, 타인의 정서를 수용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으며, 책임감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자아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자가 의식화되면서 20회기가 지나자 우울할 때마다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신의 불안하고 거친 그림자 감정을 스스로 의식화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림 4> 26~28회기 결과물

<그림 4>는 26~28회기 진행한 결과물로 짜증이 심한 날 밑그림을 그려와 대화를 나누며 완성한 작품이다. Jung은 인간에게는 전체로서 살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가 그 자신으로서 살지 않고 그의 어느 한 면만을 내세우고 살면 언젠가는 그의 다른 면이 그의 삶의 일부로 마저 참여시켜 주기를 요구하게 되어있다(이부영, 2011)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27회기 관찰 일지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열등한 인격을 스스로 감싸기 시작함으로써, ‘그림자’를 그의 삶의 일부로 참여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배경은 웃고 있는 꽃에게 회색을 칠해줄래요. 울고 있는 쪽은 밝게 칠해 줄 거예요. 한쪽만 다 가지면 못 가진 쪽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요. 다 어두우면 너무 불쌍해요. 서로 반대로 배경을 칠해줘야 그래야 평등하고, 서로 잘 살 수 있을 거 같아요.(27회기 관찰일지 중에서)

웃고 있는 꽃에게 무채색을 선택하고, 울고 있는 쪽은 노란색을 선택하여 자신의 그림자를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자신의 그림자를 스스로 배려함으로써 전체로서의 균형감을 갖게 한 것이다. <그림 4>의 긍정적 자아 앞모습은 세상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슬픈 감정의 부정적 옆모습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신이 창피하여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싶다는 ‘그림자’의 의미를 시각화한 것으로 세상과 직면하기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특히, 배경 선택에 있어

균형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부분을 인정하여 스스로에게 배려하는 자기에가 생겨난 것이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너무 힘들고 나쁜 생각을 많이 했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매일 걷는 사람은 자신이 걷는 것에 대해서 행복한 일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매일 주저앉고 넘어지는 사람은 단 두 걸음 걸어도 행복하다는 걸... (자서전 '괜찮다. 괜찮아' 중에서)

위의 글은 미술 치료 프로그램 종결 후, 자서전 형식으로 작성한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 '너무 힘들고 나쁜 생각을 많이 했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의 부정적 요소는 18회기 관찰일지와 <그림 4>에서 표현된 그림자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매일 주저앉고 넘어지는 열등한 성격의 그림자를 자신의 문제로 의식화하여 '단 두 걸음 걸어도 행복하다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변화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림 4>와 27회기 관찰일지를 통해서도 같은 구조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자인 부정적 인격을 의식화하고, 현실의 자기 문제를 의식화한다. 이 과정 안에서 부정적 현실인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독이며 스스로에게 배려함으로써 삶의 균형감에서 오는 자기에 감정이 생겨난 것이다.

3) 상징화를 통한 자아 치유

31회기 관찰 일지를 살펴보면, 미술 표현 활동 초반 '이 아이'라고 지칭하던 3인칭 표현에서 1인칭 시선으로 연구 참여자가 자화상 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들과 같은 건 싫어요. 눈썹도 튀게 하고, 화장도 튀게 할 거예요. 옷은 단정하게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입힐 거예요. 머리는 우아하고 액티브하게 날려줄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멋지게 날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면서 속이 시원해졌어요.(31회기 관찰 일지 중에서)

Jung은 무의식의 심상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수행하게 되는 상징화 과정이 치유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정신치료에 적용하였다(강미화, 2011). 31회기 관찰 일지를 살펴보면, 자신의 자화상 미술 작업 중 '바람'을 상징화하여 치유력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멋지게 날림'으로써 자신이 멋지게 변화

하는 감정을 경험하고, ‘그림 그리면서 속이 시원해졌어요.’라고 느낌으로써 심신이 이완되는 치유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 경험은 자의식을 바람직하게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며, 긍정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5> 29~31회기 시각자료 결과물

몽크의 자화상을 보면 몽크의 시선이 모두 정면을 향한 독특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잔혹한 현실과 고통은 그를 괴롭히지만, 그의 삶과 직접적으로 직면하려는 것이다 (박미진, 오승진, 2013). <그림 5>의 자화상 역시 정면을 향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그림자인 부정적 현실을 직면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의식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림 5>에서 나타나는 자화상의 가장 큰 특징은 귀를 강조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과장해서 표현한 점이다. 이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중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타인과의 소통에 있어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어깨를 둥글고 부드럽게 그림으로써 융통성 있고 유연한 태도로 변화하였음을 표현하였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길게 표현한 목은 감정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생겨 감정 표현에 있어 억압과 분노를 반복하던 양가적 태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제력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즉, 불만족스러운 외부 환경에서도 자신을 표현하고 개방 할 수 있는 수용적인 상태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확실하게 그려진 눈썹과 눈동자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의식화할 수 있고,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적절한 크기의 코의 위치를 통해 환경으로부터 정서적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내적 안정감과 균형감을 갖게 되었다.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은 타인과 부드러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정서적 안정감으로 변화한 것이다. 많고 진하게 그린 머리카락은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성격의 변화를 표현한 것으로 자기 매력을 발산하는 자기애의 표현이다. 바람을 상징화하여 자기애를 의미하는 머리카락을 멋지게 표현하게 되면서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만족스러운 내면 경험을 통해 자아 치유적 효과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상징화된 바람을 이용하여 자기애 상징인 머리카락을 멋지게 표현함으로써, 상징화 과정을 통해 치유력을 경험하게 되고 보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VI. 결론

소득 간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부족에 따른 열등감, 소외감 등의 심리적으로 위축된 내면 욕구와 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부모와의 대화부족, 불안, 우울감정의 심리적 불안감 등 저소득층 청소년이 가진 심리적 복잡성으로 학교 내 심리 상담 위기개입 서비스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저소득층 청소년이 가지는 환경적·심리적 특성으로 인한 집단따돌림, 공격성, 자살 고위험군 등 학교 부적응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아성립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부정적 자기 인식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기 쉽다. 이는 자살, 사회 부적응,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회 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화상 미술 표현 활동을 통해 자아 치유적 의미로서 자아존중감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자화상 미술 표현 활동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가지는 높은 불안·우울 등 억압된 감정인 자신의 그림자를 용기 내어 직면하고 시각화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경험하였고, 자화상 작업 중 자신을 긍정적으로 투영하는 치유적 경험을 함으로써, 자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저소득층 자살고위험군 청소년과 나눈 수용적 대화를 통해서도 자아의 의식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서적 지지는 애정 부족에 의한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미술 활동 과정 중 수용적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소외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자화상 미술 표현 활동은 자신감이 부족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고립된 자신의 부정적 심리적 방어를 인식하기에 효과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자화상 미술 작업은 자기 개방을 통한 의식화 과정에 있어 자기의 내면을 살피고, 시각화하기에 좋은 소재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자살고위험군 청소년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자아존중감은 후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성격특성임을 감안할 때, 자화상 미술 작업은 자살 고위험군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기실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미술 지도방안이라 할 수 있다. 자화상 미술 표현 프로그램이 정서적 지지 강화 역할로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심리적 복잡성을 가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기주도적 자아 치유 방안으로 발전되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기중(2008).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지도자료**. 대전: 대전교육청.
- 강미화(2011). 학교적응유연성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4, 107-130.
- 김성민(1998). **응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 김은영(2003). 문제의 중요도에 따른 반응조화설 검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진이. (2009). 경제적 압박감이 빈곤아동의 학교생활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 위험 : 변인과 부정적 부모역할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28 : 7-43.
- 박미진, 오승진(2013). 에드바르트 뭉크의 자화상에 나타난 미술 치료적 의미 연구. **예술 심리치료연구**, 9(1), 191-211.
- 박현선(2008).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6, 113-137.
-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회(2003).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척도집**. 서울: 도서출판 나눔의 집.
- 소창애(1997). 자기 표현을 위한 자화상 그리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신민섭(1993).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도피 척도의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신민섭(2007).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2판). 서울: 학지사.
-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 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윤정은(2010). 자화상을 통한 고호의 자아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이부영(2011). **분석심리학 C. G. 융의 인간 심성론**. 서울: 일조각.
- 이선화(2011). 자기치유활동으로서의 자화상 그리기 수업 사례연구-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정인(2009). 자화상을 통한 표현 중심의 미술 교육 연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임수영(1995). 중학생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 적지의 완충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임영식(1997). 청소년기우울의 특징과 문제행동. **사회과학연구**, 10, 108-133.
- 장운정(2011).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자화상 지도안 연구-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전영주, 이숙현(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 연구**, 7(1), 221-246.
- 전은희(1996). 청소년의 자기노출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 **광주보건대학 논문집**, 21, 393-410.
- 정영인(2009). 방어기제 관점으로 본 페미니즘 작가 자화상의 자아치유 요인 연구. **한국 디자인트렌드학회지**, 22, 67-78.
- 조현진(1990). 우울, 자기 비하 및 삶의 의미가 자살 관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팽은경(2002). 자화상 표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 한국사회 이론학회(2008). **뒤르케임을 다시 생각한다**. 서울: 동아시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경제위기에서의 빈곤 아동·청소년의 실태조사**. 서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홍나미(1998).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Brooks-Gunn, J., & Duncan, G.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Elkind, D. (1984). *All grown up and no where to go: Teenagers in crisis*.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Mann, J. J., Apter, A., Bertolote, J., Beautrais, A., Currier, D., Haas, A., ... Hendin, H. (2005).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a systematic review*. *Jama* 294(16),

2064-2074.

McLoyd, V. C., Jayaratne, T. E., Ceballo, R. & Borquez, J.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Child Development* 65, 562-589.

Durkheim, D. E. (2008).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황보종우 역). 서울: 청아출판사. (원저 1897 출판)

Rogers, C. R. (2009). **진정한 사람되기**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61 출판)

Walker, J. (1983). *Portrait 5000 Years*. New-York: Harry N Abrams.

논문접수 2016년 1월 15일	논문심사 2016년 1월 30일	게재승인 2016년 2월 10일
-------------------	-------------------	-------------------

ABSTRACT

Analysis on Changes in Self-Esteem through Art Expressions with Self-Portrait Targeting Teenagers in Low-Income and High-Risk Suicide Groups

Jaekyong LEE, Sunah KIM

By considering the situation with continuous and serious economic gap, the psychological support to find the true 'Myself' is very necessary for low-income group teenagers who face senses of loss, alienation and mental pessimism. Especially, the expression with self-portrait can be an appropriate art activity to express human emotions and ego for teenagers in low-income and high-risk suicide groups with unstabl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purposes to figure out whether the teenagers in low-income and high-risk suicide groups could help to create self-esteem change, the positive effect of self-portrait, through own expression to know about their own ego. In this study for teenagers in low-income, and high-risk suicide group, we analyzed art expression activities, observation journal of each time observing non-linguistic expression responses and changes and 5 self-portrait visual materials through activities by target group.

Also, the self-esteem (Coopersmith (1967)) range was implemented with preliminary and post inspections to figure out the document materials in the forms of autobiography and art work effect after the art activities. This study showed that the art expression with self-portrait could be an art approach in the means of facing and symbolizing the negative shadow of themselves, sublimate negative pain and change into positive self-esteem.

The study expects that the art expression activity of self-portrait could be recognized as the most appropriate art expressional instruction method, and the teenagers in low-income and high-risk suicide groups with psychological complexity could know that they are valuable, lead their lives to positive attitudes to heal their repressed emotions, and could be used at the site.